

# 조선 국왕의 한시에 나타난 天氣의 인식과 표현 양상

김 남 기\*

## <目次>

- |                          |                              |
|--------------------------|------------------------------|
| I. 서론                    | III. 국왕의 天氣에 대한 인식과<br>표현 양상 |
| II. 天氣와 관련된 국왕의<br>한시 개관 | IV. 결론                       |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국왕들의 한시 중에서 天氣와 관련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천기의 인식과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列聖御製』의 편찬 과정 및 국왕의 한시 중에서 天氣와 관련된 작품을 개관한 뒤 이들 시편의 창작 동인과 작품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열성어제』에 실린 천기 관련 국왕의 시편은 성종·숙종·영조·정조·익종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천기 현상 중에서 비와 눈, 해와 달, 가뭄과 홍수 등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편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농업을 중시하던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喜雨와 瑞雪, 가뭄과 홍수를 제재로 한 시편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조선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는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기와 관련된 국왕의 한시를 天氣의 조화와 驗豊에 대한 기원, 천기의 不調와 民瘼에 대한 자성, 天道의 섭리와 物理에 대한 탐색, 천기의 변화와 物象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knk5671@andong.ac.kr

에 대한 玩賞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선 국왕의 한시에 나타난 천기 인식과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국왕의 천기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기본적으로 治者로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개입하고 있고, 일부 작품은 개인으로서의 抒情을 토로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에는 天人感應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천기를 통하여 인간 사회의 질서 또는 도덕과 관련지으려는 의식이 개입되어 있음을 살폈다.

【주제어】 『列聖御製』, 조선 국왕의 한시, 天氣의 인식과 표현 양상, 풍년의 기원, 민생에 대한 自省, 物理의 탐색, 사물의 玩賞

## I. 서론

인간은 시공 속에서 人物事와의 관계 맺음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인식하고 실천한다. 주체와 객체는 일면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인간의 대상 인식은 언어적 사유와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구현되고 전달된다. 대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와 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면 대상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가 한 개인과 집단의 인식을 다각도로 구명할 수 있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詠物詩를 지었는데, 이 속에는 사물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형상화,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이를 통한 인간세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다. 주변의 사물은 크게 天文(時令)·地理(江山·草木花果·鳥獸蟲魚 등)·人事(器物·衣服·宮室·飲食·文具 등) 등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물시 중에서 天文門을 소재로 하여 지은 조선 국왕의 한시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劉在建은 『古今詠物近體詩』에서 천문에 해당하는 부류로 日·月·星·河漢·風·雷電·雲·

霞·雨·霧·露·霜·雪·氷·虹霓·晴·寒·暑·涼 등을 제시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를 선발하였고,<sup>1)</sup> 王力은 天文門에 해당하는 부류로 天空日月風雨霜雪霰雷電虹蜺霄雲霞靄氣煙星斗嵐陰陽照暉曠露霧烽火颯 등을 예로 들었다.<sup>2)</sup> 그런데 天文門에 해당되는 소재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조선 국왕의 한시 중에서 天氣와 관련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列聖御製』의 편찬 경위 및 天氣 관련 수록 시문<sup>3)</sup>을 간략히 살펴본 뒤 3장에서는 국왕의 천기에 대한 인식과 표현 양상을 첫째 天氣의 조화와 驗豐에 대한 기원, 둘째 천기의 不調와 民苦에 대한 자성, 셋째 天道의 섭리와 物理에 대한 탐색, 넷째 천기의 변화와 物象에 대한 玩賞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 II. 天氣와 관련된 조선 국왕의 한시 개관

『列聖御製』는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4명의 어제를 모아 편찬·간행한 책으로 국왕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료·종친들과의 교유 및 정치적 목적에서 쓴 글, 祖宗의 성덕을 기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하면서 國泰民安을 기원한 글, 궁중 생활과 주변의 경물을 읊은 글, 治道의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한 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열성어제』는 세조·성종·연산군 연간에도 편찬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고, 이후 명종 연간의 『仁廟御製』(1책), 인조 연간의 『열성어제』(1책), 숙종 연간의 『列聖御製補遺』(1책)와

1) 劉在建, 『古今詠物近體詩』, 아세아문화사, 1981.

2) 王力, 『漢語詩律學』, 上海教育出版社, 1957, 제14절 對仗의 種類, pp.153-166. 참조.

3) 金南基의 「『列聖御製』 解題」(『列聖御製』,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2-2004.)와 『규장각소장왕실자료해제·해설집1-4』(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중 제3책 제4장 ‘王室의 文藝’ 개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열성어제』(4책), 경종 연간의 『열성어제』(8책), 영조 연간의 『열성어제』(11책), 정조 연간의 『열성어제』(23책), 순조 연간의 「正宗大王御製」(22책), 헌종 연간의 「純宗大王御製」와 「翼宗大王御製」(합 12책), 철종 연간의 「憲宗大王御製」(3책), 고종 연간의 「哲宗大王御製」(3책)가 간행되었다. 『열성어제』에 수록된 국왕의 시문 편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4)</sup>

<표1> 『列聖御製』의 체제와 시문의 편수

국왕	권차	시	문	국왕	권차	시	문
태조	권1	5제 5수	6편	선조	권7	56제 63수	22편
정종	권1	1제 1수		인조	권8		7편
태종	권1	9제 14수	1편	효종	권8	86제 103수	29편
세종	권2	1제 1수	20편	헌종	권8	3제 3수	
문종	권2	6제 7수	5편	숙종	권9-권16, 별편2	577제 816수	292편
단종	권2	1제 2수		경종	권17	4제 8수	17편
세조	권3-권4	32제 62수	79편	영조	권18-권37, 별편3	524제 831수	691편
예종	권4		2편	정조	권38-권77, 별편4	317제 443수	1258편
성종	권5-권6	110제 204수	37편	순조	권78-권89, 별편5	45제 83수	423편
중종	권6	2제 2수	1편	익종	권90-권95, 별편6	392제 608수	136편
인종	권7	4제 16수	10편	헌종	권96-권100	23제 23수	289편
명종	권7		4편	철종	권101-권104	53제 53수	293편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에는 세조·성종·선조의 시문이 많은 편이고, 조선후기에는 시문의 편수가 급증하는데 그 중에서 숙종·영조·정조의 시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실은 국왕 개인의 시문 창작에 대한 열정이 편수의 차이를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조선 전기에 비하여 조선후기에 『열성어제』의 편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4) 『규장각소장왕실자료해제·해설집1-4』(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중 제3책 제4장 ‘王室의 文藝’ 개관 p.7에서 재인용. 수록된 시문 중에서 연구·약장·치사·사 등은 시, 사부는 문에 포함하였고, 태조부터 영조까지는 정조 연간에 간행한 『열성어제』의 卷次를 따랐다.

시문의 일실이 적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국왕의 시문, 특히 한시 중에서 天氣와 관련된 작품은 어떠한 계기에서 창작되고 주요 작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약술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작품을 제시한 뒤 창작 동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부 국왕의 경우 천기 관련 작품이 없거나 이러한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태종은 「摩尼山祭壇 二首」, 「辛卯七月奉上王 置酒廣延樓賞蓮 時方久旱 靈雨霽然 仍製一絕」, 성종은 「春盡花落 何嫌萬苑寂寥 天將大雨 方歡西成之望 憶兄寂坐 以贈拙篇 勿笑求正」, 「夜坐對雪賦戲律一笑」, 「詠春雪」, 「四月雨後 憶兄寂歷 用錄宮中事爲破閑 勿笑」, 「夜雪念北征將士有作 并小序」, 「雨中憶兄之與予一般拙賦 勿陋見教(三首)」, 「和閏正月雪中題韻」, 「喜好雨示予意」, 「閑坐憶兄之苦熱寂坐 因喜晴酷熱賦請和」 등이 있다. 선조는 「春日戲題」, 「雪後偶成漫語」, 효종은 「謾詠春雪」, 「喜雨」, 「積雨初晴 次麟坪大君韻」, 「春雨」, 「喜雨」, 현종은 「自溫泉冒雨還宮 書賜東平尉」 등이 있다.

숙종은 「自溫泉冒雨還宮書賜東平尉」, 「東山月出歌」, 「丁丑四月二十二日憫旱 躬禱于社壇 而微誠淺薄 未獲冥應 一則媿極 二則焦遑 乃於還宮之路 駐輦于通衢 命召時任原任大臣暨三司之臣 諭以特施解網曠蕩之意 禁府刑曹時囚中 除關係綱常殺人強盜咀呪外雜犯死罪以下 盡解枷杻 出致駕前 蓬頭鬼形 不似人貌 身親見之 不覺潸然 卽令刑房承旨 傳宣德意 一併放赦 蓋爲萬民靡所不用其極之意 而罪人等莫不攢手歡欣 亦足以感動也 遂吟得一律」, 「丁丑之夏 旱暵頗甚 五月初十日之多密雲忽起 小霽驟至 卽所謂太宗雨也 感而作」, 「小雨歎」, 「大雨」, 「孟春雪後述懷」, 「時雨」, 「喜雨」, 「望雨」, 「辛巳五月十三日憫旱 躬禱社壇 還宮之路 遂詣金吾 親自錄囚 蓋倣漢明帝古事 而欲其導和氣而致甘霖之意也(二首)」, 「憫旱」, 「喜晴」, 「憫旱」, 「予於殿庭中秋種二麥於河濱遺器矣 近緣春旱不茂 一雨崇朝 頓覺勃興 春農可幸」, 「憫旱躬自禱雨于太廟 終日坐齋室 望切雲霓而作」, 「先農壇祈雨親祭出 還宮時吟成四首」, 「雨後志喜」, 「喜臘雪」, 「雨中賞花」, 「七

夕朝雨 用大司憲金德誠文集中七夕不雨韻，「昨夜大雨」，「戊子夏五月 因旱災避殿于興政堂 南望引慶 如對咫尺 遂吟一律 兼寓憂旱之意」，「望雨」，「歲在戊子夏六月庚午 出宿于集慶堂 越三日癸酉 將有事于南郊 盖憫旱也 翼日辛未雨庶冀稿苗可救也 遂因銀臺之啓 姑停親禱之禮 第二句不曰集慶而稱藥淵舊號者叶韻也」，「春雪」，「辛卯五月十一日 甘雨沛然 喜而作」，「春寒」，「四月三十日旱餘得雨」，「憫旱」，「五月十七日 卽我聖母誕辰也 自前雖大旱 是日則不雨者少矣 今朝小霖 深增愴感」，「流頭下雨」，「七月初八日雨」，「登高亭詠雪」，「季冬念後之雨過多 雨後寒冽 秋耕兩麥 必多凍傷可悶」，「望雨」，「七月七日作七夕已屆 旱乾轉甚 可憫」，「今日下雨可幸」，「好雨終宵可喜」，「大雪」，「好雨初收」，「近日之雨 一向霏微 雖有益於麥田 終無望於播種 用是爲慮矣 曉雨作聲 喜而口號」 등 매우 많은 시편이 있다.

경종은 「去夜灑雨」, 영조는 「曉日」, 「夕月」, 「霖雨初收 始見月明二首」, 「太廟親行祈雨日 路中逢喜雨」, 「爲民祈雨 清齋齋殿 而雨意逸然 自嗟枕淺 仍賦一詩 竊有思焉 爲人君能識爲君乎民者 爲民而作則一食一息 豈弛乎民也 而歷觀往牒 以民謂以奉予 而生其使民也 無節民雖困窮 而視若尋常 民晷之意焉 在予雖涼德恤我元元受法陟降 今因興慨 效古人遇物誨之意 書付元良 問候之官咨元良 銘佩于心 銘佩于心」, 「喜雨」, 「北郊祈雨親祭 還宮路御彰義門樓」, 「特製喜雨詩 書示銀臺」, 「滌暑雨」, 「翫月」, 「喜雨」, 「喜雨詩」, 「喜雨」, 「朝日吟」, 「詠月」, 「喜雨詩」 등의 시편이 있다. 정조는 「日」, 「月」, 「詠月」, 「喜雨」, 「雨過」, 「大雪」, 「久闕膏澤 雲霓之望 方切何幸 一雨三日 慰滿田野 嘻其庶幾 伊誰之力 苟非宸誠所格 天心所眷 則豈有是哉 余不任慶賀 謹賦一律 志喜」, 「雨後」, 「雨後看瀑玉流川有吟」, 「社壇祈穀日 和昌黎辛卯雪詩韻并小序」, 「積雨新晴 視諸臣并小序」, 「雪夜 召對玉堂官聯句」 등이 있다.

순조는 「月」, 「天道」, 「日」, 「雨中春樹萬人家」, 「大雪滿弓刀」, 익종은 「雪景吟」, 「千尺雪詠」, 「松菴雪夜賞月」, 「雪裏高節松柏寒」, 「山樓看月」, 「雨花園」, 「微雲又作陰」, 「雨霽山爭出」, 「林雨新晴 與三數宮僚晚登芙蓉堂」, 「雪裏鳴鶴」, 「秋日雨雨山齋寂坐夕間聞隣舍砧聲爲賦一絕」 등이 있

다. 현종은 「瑞雪」, 철종은 「憫旱」, 「臘雪」, 「雪晴」, 「雪月」, 「天」, 「日」, 「星」, 「喜晴」 등의 시편이 있다.

이상으로 『열성어제』에 실린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 작품을 제시하였는데, 성종·숙종·영조·정조·익종의 시편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울러 천기 현상 중에서 비와 눈, 해와 달, 가뭄과 홍수 등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편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농업을 중시하던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喜雨와 瑞雪, 가뭄과 홍수를 제재로 한 시편이 많은 것에서 이를 반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 창작의 동인은 무엇이고, 국왕은 이들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 작품 창작 동인은 크게 治者의 입장에서 쓴 公用的 문학, 시인의 입장에서 쓴 私的 문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치자의 입장에서 쓴 한시에는 喜雨·瑞雪 등을 보고서 풍년에 대한 기쁨 내지는 與民同樂에 대한 바람을 읊은 시편, 홍수·가뭄 등의 현실을 목도하고서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자성과 백성의 참상을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담은 시편이 있다. 시인의 입장에서 쓴 한시에는 천기를 보고 그것의 이치와 본질을 탐색한 說理的인 시편, 눈앞에 펼쳐진 천기를 보고 느낀 감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抒情的인 시편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나눈 네 가지 범주는 대체적인 경향이 그러하다는 것이지만 모든 작품이 이러한 범주에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의 작품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혼효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성종이 1477년(성종 8) 4월 26일에 지은 「단비를 기뻐하며 내 뜻을 보이다[喜好雨示予意](권5)」<sup>5)</sup>라는 작품이다.

眇冲多錯政	내가 부족하여 그릇된 정사가 많으니
譴責見皇天	자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네.
杲杲千里赤	해가 매우 뜨거워 천 리가 붉게 타고

5) 이하 『열성어제』에서 인용할 경우 작품 제목 뒤에 권차만을 표기한다.

噫氣散青烟    더운 기운 내뿜어 푸른 연기 흩어지네.  
 吾罪安辭道    내가 죄에서 어찌 도망하리?  
 民生最可憐    민생이 최고로 가련하네.  
 通宵終不寐    밤새도록 끝내 잠 못 이루며  
 自責到無邊    스스로 책망함이 끝이 없네.  
 人豈回天力    사람이 어찌 하늘의 힘을 돌리리오?  
 天當恤人癩    하늘이 사람의 아픔을 구휼함이 마땅하네.  
 油然雲起峽    몽게몽게 구름이 골짜기에서 일어나  
 霏然雨潤田    주룩주룩 비가 논밭을 적시네.  
 豈待維魚夢    어찌 물고기 꿈꾸기[魚夢]<sup>6)</sup>를 기대하리오마는  
 期逢大有年    크게 풍년 들기를 기약하노라.

성종은 위의 시편에서 자신의 부덕으로 정사가 잘못되어 가뭄이 든 현실에 대하여 자책한 뒤 다행히 하늘이 백성을 공휼히 여겨 단비를 내려준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였다. 난해한 전고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평이하게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직서하였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덕과 능력이 부족하여 하늘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자성과 자책을 하는 한편 하늘이 단비를 내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구름이 일고 단비가 흥건하게 논밭을 적서 풍년이 들 조짐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무한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가뭄으로 인한 백성의 질고를 염려하고 失德에 대한 국왕의 자책, 동시에 단비로 인한 풍년에 대한 기원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 층위의 주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1768년(영조 44) 12월에 내린 큰 눈을 보고 지은 「大雪」(권38)이다.

6) 『詩經』, 「小雅·鴻雁之什」, 「無羊」에 “목동이 꿈을 꾸니 수많은 물고기와 여러 가지 깃발이라네. 日官이 점을 치니 수많은 물고기는 풍년이 들 징조이고 여러 가지 깃발은 집안이 창성할 징조라네.[牧人來夢, 衆維魚矣, 旄維旛矣. 大人占之, 衆維魚矣, 實維豐年, 旄維旛矣, 室家溱溱.]”라는 시구가 있는데, 이후 魚夢으로 풍년의 조짐을 말한다.

玄化參天地	성인의 덕화가 천지에 참여하여
羣生一大包	못 생명들을 하나로 크게 포용하였네.
陰陽隨節變	음양은 절후에 따라서 변천하고
風雨以時交	풍우는 때에 맞춰 교대하네.
遠水寒生骨	먼 데 물은 한기가 뼈에 사무치고
深宮暮折膠	깊은 궁전엔 저녁에 추워서 아교가 굳었네. <sup>7)</sup>
玄冥初按節	겨울 귀신이 막 속도를 늦추었는데
風伯更承旃	바람 귀신이 다시 깃발을 이어받았네.
拂石糝鹽虎	돌에 부딪쳐서는 虎鹽 <sup>8)</sup> 을 이루고
飄空鬪玉蛟	공중에 날리면 玉龍이 싸우는 듯하네.
白三徵臘瑞	白三은 선달 瑞雪의 징조가 되고 <sup>9)</sup>
滕六象陰爻	滕六은 陰爻를 상징하네. <sup>10)</sup>
連璫千門逕	千門의 길은 구슬을 꿰어 놓은 듯
裁瓊上苑梢	上苑의 나뭇가지는 옥을 조각해 놓은 듯하네.
燭調欽聖德	燭調로써 성덕을 흠모하겠거니와 <sup>11)</sup>
尺厚認天教	한 자 넘는 깊은 눈은 하늘의 시킴이네.
皎潔凝雙闕	희고 깨끗한 빛이 雙闕에 모이자
豐穰占四郊	풍년을 사방의 들녘에서 짐치네.
休祥遍八域	아름다운 상서가 팔방에 두루 미치니
歡忭并同胞	온 나라 동포들 손뼉 치며 즐거워하네.

정조는 위의 장편고시에서 영조의 盛德을 기리는 한편 눈이 내리는 장관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동시에 瑞雪로 인하여 내년 농사가 대풍이

- 
- 7) 가을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아교가 굳어서 꺾어진다는 의미로 보통 추운 늦가을과 겨울을 가리킨다.
  - 8) 호랑이 모양을 본떠서 굳혀 만든 소금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눈[雪]이 쌓여서 호랑이 모습처럼 된 소금[虎形鹽]을 비유한다.
  - 9) 납일 이전에 세 차례 눈이 내린 것을 三白이라 하는데,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 10) 등륙은 눈[雪]의 별칭인데, 六은 陰數이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 11) 玉燭調和의 준말로 天地四時의 기후가 잘 조화됨을 이른 말인데,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들어 온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1구부터 4구까지는 天人感應論에 바탕하여 영조가 德化로 천지조화에 참여하여 음양이 순조롭게 운행되어 비와 바람이 때에 알맞게 내리고 부는 것을 칭송하였다. 5구부터 14구까지는 추운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는 장관을 여러 비유와 전고를 통하여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虎鹽, 玉蛟, 白三, 臘瑞, 滕六, 連璐, 裁瓊, 燭調, 尺厚 등 눈을 비유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눈이 내리는 장관과 눈이 온 뒤의 대궐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용하였다. 15구부터 20구까지는 하늘이 서설을 내려 내년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이기에 군민이 모두 손뼉 치며 즐거워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결국 이 시는 서설을 보면서 군왕의 성덕 칭송, 눈이 내리는 장관의 묘사, 풍년의 조짐에 즐거워하는 군민의 기쁨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편의 시에서 살펴보았듯이 천기를 읊은 국왕의 작품에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범주 중에서 두세 가지 내용을 포괄하여 시화한 것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되 그 중에서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 Ⅲ. 조선 국왕의 天氣에 대한 인식과 표현 양상

#### 1. 天氣의 조화와 驗豊에 대한 기원

본 절에서는 음양이 조화로워 節序에 맞게 단비와 서설이 내리거나 오랜 가뭄이나 장마가 끝나 국왕이 臣民과 함께 기뻐하며 풍년을 축원하는 시편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시편은 많지만 그 중에서 효종, 숙종, 정조, 철종의 시를 검토한다. 정조는 「喜雨樓志」(권76)에서 近臣들을 돌아보며 “농사가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생업을 즐겁게 여길 것이니 그 기쁨이 크다. 옛날 사람이 喜雨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은 반갑게 내리는 비의 기쁨을 새겨두려고 해서이다. 마음으로 반갑게 내리는 비를 기

빠하면서 새겨두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으면 그만일 것인데, 어찌하여 정자의 이름까지 그것으로 지었던 말인가? 마음이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하니, 마음에만 새겨둔다면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즐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큰 기쁨을 마음에 새겨 두고, 마음에 새겨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사물에다 새겨두고, 사물에다 새겨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마침내 정자에다 이름을 지었으니, 이에 그 기쁨을 새겨두는 것이 크다. 그러므로 이 누의 이름을 喜雨樓라고 한다.”<sup>12)</sup>라고 하여 희우의 기쁨을 맞이하여 與民同樂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누정에 가탁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효종이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 「喜雨」(권8)이다.

霏霏好雨漲新波	부슬부슬 단비에 새 물결이 불어나서
處處田家樂事多	농가에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많구나.
從此已知豐歲兆	이로부터 풍년이 들 조짐임을 알겠거니
九重應聞擊壤歌	궁궐에서 반드시 擊壤歌를 들으리라.

효종은 봄날 단비가 부슬부슬 내려 냇물과 강물이 불어나 논밭을 갈고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분주하면서도 기쁘게 농사를 준비하여 올해 대풍이 들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풍년이 들면, 요임금 때 백성들이 含哺鼓腹하며 「擊壤歌」를 불렀던 일을 떠올리며 조선왕도의 백성들도 「격양가」를 부르며 즐거워할 것임을 상상하고 있다. 이 시는 治者로서 태평성세를 기원하는 국왕의 심회를 피력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2) “歲可大有，而民樂業，喜其大矣。古人之以喜雨名其亭，欲以志喜雨之喜也。心而喜喜雨而志之，則志乎心不忘，可已。惡乎名其亭，心者已知之，而人之知弗與焉。志乎心則已獨喜其喜，而不與人共喜也。故喜之大者，志乎心，志乎心之不足，志之於物，志於物之不足，遂有亭之名焉。於是乎其喜之志也大矣，故名斯樓曰喜雨樓云。”

다음은 숙종이 1695년(숙종 21)에 장맛비가 그치자 농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뜻을 부친 뒤 海昌都尉 吳斗寅에게 화답하도록 내린 「淫雨初霽 民事可幸 遂以言志」(권9)이다.

北岳雲收積雨開	북악산에 구름 걷혀 장맛비가 개이자
薰風陣陣自南來	살랑살랑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네.
仁愛天心應悔禍	인자한 천심이라 재앙을 뉘우쳤으니
田家從此永蠲災	농가에는 이로부터 길이 재난이 줄리라.

북악산에 구름이 걷히고 장맛비가 개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화창한 날씨가 회복되었다. 오랜 장마가 갠 것을 두고 천심이 인자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 표현이 재미있다. 장맛비가 갠 뒤 농가에는 홍수 피해가 없어지고 농사에 힘을 기울여 장차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기에 이것을 흐뭇하게 여기는 국왕의 심정을 행간 속에 은미하게 드러내었다.

다음은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1770년(영조 40)에 지은 작품으로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3일 동안 흥건하게 내린 사실을 두고 임금의 성덕의 성덕에 감응하여 하늘이 백성을 돌보아 단비를 내린 기쁨을 노래하였다. 제목이 「오래도록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를 바라는 마음이 한창 간절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비가 3일 동안 계속 내려 위로의 기쁨이 田野에 가득하였다. 아! 이 정도면 거의 해갈이 될 것이니 이것이 누구의 힘인가? 진실로 성상의 정성이 이르는 곳에 천심이 돌본 바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경하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삼가 읍시 1수를 지어서 기쁨을 기록한다.[久闕膏澤 雲霓之望方切 何幸一雨三日 慰滿田野 嘻其庶幾 伊誰之力 苟非宸誠所格 天心所眷 則豈有是哉 余不任慶賀 謹賦一律志喜」(권38)로 제법 길다.

朝來好雨下層城	아침에 단비가 도성에 내리니
莽莽遙林淑氣生	드넓은 먼 숲에 맑은 기운이 이네.

潤物方知由造化	만물을 적셔준은 조화에서 말미암음을 알겠고
斂功還覺自清明	비가 그치자 다시 절로 청명해짐을 깨닫겠네.
直將一念回天力	곧바로 일념으로 하늘의 힘을 돌리어
大慰三農望霽情	농민들의 비 바라는 심정을 크게 위로했네.
匝域蒼生歌聖德	온 누리의 창생들이 聖德을 노래하니
從看四海樂昇平	앞으로 천하가 태평성대 즐거움을 보리라.

가뭄이 들자 영조는 자신의 失德을 자책하고 하늘이 단비를 내려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단비가 3일 동안 도성에 내려 만물을 두루 적신 뒤 비가 개어 청명한 날씨가 돌아왔다. 이것은 임금이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기도하자 하늘도 성덕에 감응하여 농민들의 희우에 대한 갈망을 풀어준 것이다. 말미에서 비가 흠족하게 내리자 만백성이 임금의 성덕을 노래하니 향후 조선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즐길 것이라고 하여 군왕에 대한 칭송으로 시상을 갈무리하였다.

다음은 철종이 장맛비가 갠 뒤의 기쁨을 적은 「喜晴」(권101)이다.

積雨初晴動微風	장맛비가 막 개어 미풍이 이는데
偶來觀稼上林東	우연히 상림의 동쪽에서 파종을 보네.
收斂神功天所使	장마를 걷게 함은 하늘이 시킨 바이니
從此今年可占豐	이로부터 금년에는 풍년을 점칠 만하네.

장맛비가 그쳐 미풍이 살랑일 때 대궐 동쪽을 바라보니 농민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하늘이 다행히도 우리 백성들을 공홀하게 여겨 비를 그치게 하였으니 올해에는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 것임을 희망하였다.

## 2. 천기의 不調와 民苦에 대한 자성

국왕은 가뭄과 홍수, 흑서와 흑한, 폭설과 풍수해, 혜성의 출현 등 천문 내지 천기가 조화롭지 못할 때 祈雨祭·祈晴祭·祈雪祭 등을 지내어

이러한 재해가 사라지기를 기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재해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참상을 마음 아파하고 죄수들을 방면하면서 자성의 계기로 삼았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성종·숙종·영조·철종 등의 시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성종이 밤에 눈이 내리자 北征에 나선 장졸들이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지은 「夜雪念北征將士有作并小序」(권5)이다. 小序와 시를 나란히 보인다.

나는 변방의 일을 생각하느라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한밤중에 탐상에 일어나 서성인 지 이제 이미 열흘이 넘었다. 지난밤에 四更의 북소리가 울려 침전에서 깨어나 창을 열고서 하늘을 바라다보니 북두성이 기울고 새벽빛이 아직 먼 듯한데, 정원이 흰 빛을 띠고 있고 새벽닭이 울지 않기에 괴이하여 살펴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변방에서 수자리하는 북정한 군사를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새벽까지 이르렀고, 인하여서 부마가 나와 憂樂을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잘 것 없는 小雪詩를 지어서 천천히 화답하도록 한다.<sup>13)</sup>

中霄起榻啓軒行	한밤중에 탐상에서 일어나 창을 열고 나가
一念屯邊北討兵	변방으로 북정 나간 병사를 한결 같이 염려하네.
小雪尙繁增夜色	작은 눈이 많이 내려 밤빛이 밝고
暮寒先入助風聲	저녁 한기가 먼저 들어와 바람 소리가 거세네.
飄庭已重梅花信	뜰에 눈이 날리니 벌써 매화가 핀 듯하고
穿樹猶加柳絮輕	숲에 눈이 내리니 버들솜이 가벼이 나는 듯하네.
更憶三軍憂挾纊	다시금 생각하니 삼군이 솜옷 입은 것을 염려하여
解貂推火到天明	담비옷 벗고 불을 밀쳐 새벽까지 이르렀네.

성종은 小序에서 그동안 北征한 장졸을 염려하느라 열흘 동안 잠을 뒤척였는데, 어느 날 새벽녘 잠에서 깨어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군인들을 염려하여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북정 나간 장

13) “予思邊事，無夜安眠，中霄起榻者，今已過旬矣。去夜四鼓，覺寢開窓，瞻望蒼穹，星斗向移，曙色似遠，而庭院帶白，晨鷄不鳴，怪而察視，乃下雪也。却憶邊戍之苦征北之軍，不寐至曉，仍思駙馬與予同憂樂，故拙賦小雪詩，尉其緩酬哉。”

졸 때문에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중 뜰을 거닐며 그들을 걱정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니 눈이 수북이 내려 주변이 흰하고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경련에서는 뜰과 숲에 흰 눈이 날리는 모습을 본 뒤 아직 매화가 필 때가 아닌데도 흰 매화꽃 같은 눈이 날린다고 하고, 봄날 버드나무에서 하얀 버들솜이 바람결에 날리듯이 눈이 사방으로 흩뿌린다고 한 표현은 문학적 관습을 차용하여 멋지게 시상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련에서는 자신은 궁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북정 나간 장졸들은 눈보라와 혹한에 떨고 있을 것이기에 담비옷을 벗고 불을 밀쳐낸 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흔히 눈이 내리면 풍년을 기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작품은 瑞雪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변방에 나간 장졸들을 걱정하는 군왕의 생각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영조의 경우에도 「喜雨」(권20)에서 단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뭄이 해소되어 농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기뻐할만한 일이지만 군역에 종사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달프기 그지없기에 그들을 염려하는 심정을 표현하여 성종의 시와 서로 통한다. 즉 영조는 “들판에서 호미 들고 비오기 기다린 지 오래인데, 저녁 내내 비가 내려 우리 백성 위로 되네. 농민들이 은택 받아 다행이라 하겠지만, 비에 젖은 三軍 때문에 걱정이 새롭네.[田野携鋤待雨久, 霏然竟夕慰吾民. 農人被澤雖云幸, 沾濕三軍憫念新.]”라고 하였다.

다음은 숙종이 1697년(숙종 23) 4월 기우제를 지낸 뒤 효험이 없자 죄수들을 방면한 뒤의 느낌을 적은 시이다. 제목이 “정축년(1697) 4월 22일에 가뭄을 걱정하여 몸소 사직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나 작은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의 응답을 듣지 못하였으니 일차적으로는 부끄럽고 이차적으로는 노심초사하였다. 이에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 가마를 멈추고 시임과 원임 대신 및 三司의 신료들을 불러서 특별히 법망을 풀고 널리 석방하라는 뜻으로 효유하였다. 의금부와 형조의 당시 죄수 중에서 강상에 관계된 살인·강도·저주 이외에 잡범으로 사형 이하를 제외

하고 모두 형구를 풀고 가마 앞으로 불리오도록 명하였는데, 봉두난발에 귀신의 형상이라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 몹소 친히 그들을 보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곧바로 형방의 승지에게 명령하여 德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한결 같이 모두 방면하도록 하였다. 대개 만백성들에게 지극한 뜻이 쓰이지 않음이 없도록 한 것이니 죄인들 중에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또한 감격스러워서 마침내 을시 1수를 읊는다.[丁丑四月二十二日憫旱 躬禱于社壇 而微誠淺薄 未獲冥應 一則媿赧 二則焦遑 乃於還宮之路 駐輦于通衢 命召時任原任大臣暨三司之臣 諭以特施解網曠蕩之意 禁府刑曹時囚中 除關係綱常殺人強盜咀呪外雜犯死罪以下 盡解枷杻 出致駕前 蓬頭鬼形 不似人貌 身親見之 不覺潸然 卽令刑房承旨 傳宣德意 一併放赦 蓋爲萬民靡所不用其極之意 而罪人等莫不攢手歡欣 亦足以感動也 遂吟得一律]”(권10)로 매우 길지만 작시 배경과 동기를 잘 보여준다.

桑林祈澤薦香馨	桑林的 기우제에 향을 바쳤지만
獲戾明神莫我聽	신명에 어그러져 나의 청을 듣지 않네.
路近金吾仙仗駐	의금부 근처에 어가를 멈추고
傍招黃髮法車停	죄수를 불러서 수레를 멈추었네.
良心發處皆除網	양심이 있는 이는 모두 법망에서 풀어주고
恩諭宣時盡脫囹	은혜로이 효유하여 감옥에서 풀어주었네.
正爲蒼生和氣召	정말로 백성 위해 和氣로 부르니
區區非是美瞻聆	구구히 보고 들으며 찬미하지 않는 이가 없네.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 사직에 나가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이 청을 들어주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궁궐로 돌아오던 도중에 의금부 근처에 어가를 멈추고 죄수들을 불러서 綱常罪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은 죄수들을 방면하니 죄수들이 군왕의 성덕을 모두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노래하였다.

다음은 철종이 가뭄을 걱정하며 자신의 부덕을 자책한 「憫旱」(권101)이다.

旱氣何太甚    가뭄이 어찌 이리 심한가?  
 衆人祈沛澤    못사람이 비오기를 기도하네.  
 是予否德歟    이것은 나의 부덕함 때문이니  
 六事以自責    六事로써 스스로 책망하네.<sup>14)</sup>

철종은 상나라 탕 임금에 큰 가뭄이 들자 桑林에서 기도한 뒤 여섯 가지 일로 자책했던 것을 떠올리며 시상을 전개하였다. 만백성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지만 가뭄이 지속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나의 부덕함과 정치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고 자책하였다.

### 3. 天道의 섭리와 物理에 대한 탐색

국왕은 천도의 운행과 천기를 보면서 天道의 섭리를 확인하고 物理에 대한 탐색을 하기도 하였다. 천문과 자연 현상 속에는 질서가 자리하고 있는데, 국왕들은 이러한 현상과 그 질서를 시 속에 표현하고 동시에 그것을 人事와 연관 지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편들을 보통 說理詩라 하는데, 본 절에서는 영조·정조·순조·익종의 시편을 통하여 살펴본다.

다음은 영조가 60세 되던 해인 1753년(영조 29)에 해돋이의 장관을 본 뒤 군자와 소인에 대한 분변을 표현한 장편 칠언고시인 「朝日吟」(권21)이다.

曉來整衣步庭中    새벽에 옷을 바로하고 뜰 안을 걷다가  
 遙望東嶺日輪紅    멀리 동쪽 고개에 뜰 붉은 해를 바라보네.  
 初看恍若金盤大    처음엔 황홀이 금빛 쟁반처럼 크게 보이더니  
 高騰數丈日色新    몇 자 높이 떠오르자 햇빛이 새롭네.  
 昔聞箕雅崔嵬詩    옛날에 『箕雅』에서 崔嵬의 시를 보았는데  
 何幸今日躬親親    오늘 매우 다행히도 직접 보게 되었네.

14) 탕임금은 천하에 큰 가뭄이 들자 桑林에서 기도한 뒤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였다. 六事는 정치가 적절하지 않음·백성에게 질고가 있음·궁실이 화려함·궁녀의 청탁이 성행함·뇌물이 행해짐·참소하는 이가 흥함을 말한다.

於近於遠本無二	원근에 있더라도 본래 둘이 아니거니
何必投筇東海濱	하필이면 동해가로 구경을 가야 하나?
三十乃題看月篇	서른 살에 「看月篇」을 지었었는데
咏日長句在六旬	예순 살에 해를 읊은 장편고시를 짓게 되었네.
因此何以感我意	이를 보면 무엇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까?
燦然光彩照我身	찬란한 광채가 내 몸을 비추네.
莫能正視乃君子	똑바로 볼 수 없는 이는 군자이지만
視日不瞬卽小人	해를 봐도 눈 깜짝하지 않는 이는 소인이라네.
君子小人如黑白	군자와 소인은 흑백처럼 분명하니
嗟乎何不辨僞眞	아아! 어찌하여 진위를 가리지 않으리?
理慾之分亦晝夜	理慾의 분별이 또한 밤낮처럼 확연하니
若不透關卽墜塵	관건에 투철하지 않으면 티끌에 떨어진다네.
日將暮矣不能耐	해가 저물려하자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泚筆索紙詠此辰	붓을 적서 종이 찾아 이를 시로 읊노라.

1구부터 12구까지는 해돋이의 장관을 표현하였다. 새벽에 뜰로 나가 동쪽 고개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금빛 쟁반에 견주면서 崔嵬이 1603년 8월 17일 낙산사의 일출을 읊은 시<sup>15)</sup>를 읽으면서 일출의 장관을 음미하였었는데, 지금 직접 일출의 장관을 보게 되었으니 구태여 동해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서른 살에 「看月篇」을 지어 월출의 장관을 묘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예순 살에 바라본 일출의 장관을 장편고시로 표현하게 된 기쁨을 적었다. 이하 13구부터 20구까지는 군자와 소인에 대한 분별을 적었다. 태양이 광명정대한 것에서 착안하여 군자와 소인은 흑백처럼 구분이 분명한데, 그들의 차이는 理慾 중에

15) 崔嵬은 1603년 杆城郡守로 부임한 뒤 금강산과 관동의 승경을 유람하면서 여러 시편을 지었는데, 영조가 언급한 시는 1603년 8월 17일 낙산사에 들러 지은 「十七朝」이다. 「十七朝」는 『箕雅』와 『大東詩選』에 선발된 名篇으로 시는 “아스라한 하늘 동녘으로 달이 지더니, 만경창파에 갑자기 붉은 빛이 일렁이네. 꿈틀대는 온갖 괴물 모두 불을 머금다가 황금빛 바퀴를 황도로 내보내네.[玉宇迢迢落月東, 滄波萬頃忽翻紅. 蜿蜿百怪皆銜火, 送出金輪黃道中.]”이다. 『簡易集』 卷8, 「東郡錄」에도 실려 있다.

서 무엇을 따르는가에 달려있으니 욕망을 멀리 하고 이치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2구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이를 시로 적는다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정조가 1765년(영조 41)에 해를 읊은 「日」(권38)이다.

太陽全體明	태양이 전체를 밝게 하니
蓋有君人象	대체로 임금의 상이 있네.
品彙莫逃形	만물이 형체를 숨길 수 없으니
怪奇森萬狀	삼라만상이 기이하구나.

정조는 태양이 천지의 만물을 밝게 비추니 대체로 임금과 같다고 한 뒤 삼라만상은 태양 아래 그 형체를 숨기지 못하고 온전하게 드러낸다고 부연하였다. 임금은 흔히 태양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정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아가 자신을 萬川明月翁이라 하였듯이 자신의 덕화를 일월애 견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순조가 天道를 통하여 人道를 포괄하여 표현한 「天道」(권78)이다.

在上高顯羣所仰	위에 높이 드러나서 못사람이 우러르니
日月星辰布列光	일월과 별들이 줄지어 빛나네.
天尊地卑乾坤定	하늘이 높고 땅이 낮아 천지가 정해졌고
男剛女柔夫婦行	남자는 굳세고 여자는 부드러워 부부의 도가 행해지네.
不言而信萬物始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 만물이 시작되고
四時五行相副昌	사시와 오행이 서로 뒤따라 창성하네.
錦雲縠霧有所施	아름다운 구름과 안개가 베풀어지고
文露光風造化長	빛나는 이슬과 바람은 조물주의 장처라네.
天道至公須渾然	천도는 지극히 공평하여 혼연하니
氤氳和氣滿玄黃	무성한 화기가 천지에 가득하네.

하늘은 땅 위에 높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줄지어 운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우러러보는 대상이다. 천지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곳에

위치하듯이 천지의 도를 담지하고 있는 인간은 남녀 사이에 天德과 地德을 지님이 마땅하다. 천도의 현현과 운행에 따라 만물이 기원하고 사시와 오행이 운행되니 천기 현상인 구름과 안개, 이슬과 바람 등도 모두 천도의 현현인 셈이다. 그리고 천도는 온통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천도가 구현되면 천지에 화기가 가득할 것이라 하였다.

다음은 익중이 비가 갠 뒤 산들이 다투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物理를 자득한 기쁨을 표현한 「雨霽山爭出」(권92)이다.

雨後雲收急	비온 뒤에 구름이 빨리 걷혀
更看出沒山	다시금 나타나는 산을 보네.
方塘觀物理	연못에서 物理를 살피거니
源水放潺潺	源水가 졸졸졸 흘러가네.

비가 온 뒤 구름이 걷혀 시야로 들어오는 산들과 연못의 물을 보면서 현상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산이 구름에 덮이면 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산은 그대로 존재한다. 인간은 현상에 매몰되어 본체 내지 본질을 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산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그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비가 내려 연못으로 물들이 흘러들지만 이 물이 근원한 바를 깨우쳐야 하고, 어찌면 나아가 鳶飛魚躍의 물리까지도 깨쳐야함을 말한 시편이라 할 수 있다.

#### 4. 천기의 변화와 物象에 대한 玩賞

국왕들은 일월성신, 雨雪, 煙霞, 風雷 등의 천기 현상을 보고 이것이 주는 기쁨을 노래하고 동시에 주변의 물상에 대한 감회를 피력한 서정적인 시편들도 남겼다. 본 절에서는 태종·숙종·영조·정조 등의 시편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은 태종이 1411년(태종 11) 7월에 상왕[정종]을 모시고 廣延樓에서 연회를 베풀며 연꽃을 감상할 때 영험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지

은 「신묘년 7월에 상왕을 모시고 광연루 술자리를 마련하고 연꽃을 감상하였는데, 이때 바야흐로 오래도록 가물다가 신령한 비가 흥건히 내려서 절구 1수를 짓다[辛卯七月奉上王 置酒廣延樓賞蓮 時方久旱 靈雨霏然 仍製一絶](권1)이다.

車駕榮臨獻玉卮	거마가 광림하여 술잔을 올리니
霏然甘霖濕紅衣	주룩주룩 단비가 붉은 연꽃을 적시네.
半濃半淡新粧艷	반은 짙고 반은 옅어 새 단장이 예쁘네
西子含嬌欲語時	서시가 교태 띠며 말하려는 듯하네.

이 시는 상왕을 모신 연회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빗속에 연꽃을 감상하면서 느낀 아름다운 풍광과 형제간의 우애를 읊었다. 상왕의 거마가 광연루에 와서 술잔을 올리며 연회를 할 때 단비가 붉은 연꽃에 툭툭 떨어진다. 연꽃에 듣는 빗소리와 붉은 연꽃을 통하여 청각적·시각적 심상을 혼용하여 표현하였다. 3구와 4구는 짙고 옅은 연잎과 연꽃이 새 단장을 하듯이 곱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서시가 교태를 머금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듯하다고 하여 연꽃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연회의 흥성함과 연꽃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卞季良은 위의 시에 차운하여 5수를 지었는데, 그 중 제1수 절구와 절구에서 “우애 깊은 형님 아우 우러러보는데, 물 위에 연꽃이 만발하는 그 때였지.[仰瞻棣萼聯華日, 正值荷花滿水時]<sup>16)</sup>라고 하여 이 모임이 형제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임을 말하였다.

다음은 숙종이 정자에 올라 雪景을 읊은 「登高亭詠雪」(권12)이다.

昨夜西風急	어젯밤에 서풍이 급하더니
朝來大雪續	아침에 큰 눈이 날리네.
遙看山變白	멀리 보니 산이 흰 빛으로 변했고
俯視瓦成銀	굽어보니 기와도 은빛이 되었네.

16) 卞季良, 『春亭集』 卷3, 「奉和御製邀上王賞蓮詩韻 五首」.

御路如連璐 御路는 구슬을 이어놓은 듯하고  
 梨花若逐春 벚꽃이 봄을 맞아 핀 듯하네.  
 多時雲捲盡 긴긴 시간 구름이 모두 걷히자  
 霽景十分新 갠 경치가 무척이나 새롭네.

어젯밤에 서풍이 불더니 아침에 큰 눈이 날린다고 한 뒤 함련과 경련에서는 눈이 내린 뒤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눈이 온 뒤에 산하와 궁궐이 은세계로 변하여 어로는 흰 구슬을 이어놓은 듯 희고 봄날을 맞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듯 온통 하얗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눈을 물고 온 구름이 모두 걷혀 날이 개자 그 풍경도 매우 아름답다고 하였다. 눈이 날리는 모습, 눈 내린 뒤 주변의 변화한 물상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숙종은 1706년(숙종 32)에 빗속에 궁중의 연꽃을 감상하면서 지은 「雨中賞花」(권11)에서도 “한가로워 동원에 올라서 바라보니, 만 개의 잎과 천 개의 꽃이 모두 다 아름답네. 어찌 봄빛이 빗속에만 새롭겠는가? 곳곳마다 농부들이 기뻐함을 알겠네.[閑來東苑去登視, 萬葉千花景亦美. 豈徒春色雨中新, 處處應知田畯喜.]”라고 하여 빗속에 동원 연못의 연잎과 연꽃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흥을 적기도 하였다.

다음은 영조가 무더위를 씻는 비가 내려 심신이 상쾌해진 것을 읊은 「滌暑雨」(권19)이다.

盛暑日中氣倦也 대낮의 무더위에 기운이 노곤한데  
 忽聞睡裏雨聲來 홀연히 오수 속에 빗소리가 들려오네.  
 推枕整衣倚戶看 베개 밀치고 옷을 바로하고 창에 기대 바라보니  
 此心快滌廓然開 이 마음 짝 씻기어 확연히 열리네.

대낮의 무더위에 심신이 노곤하여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온다. 빗소리에 놀라 깨어나 창가로 다가가니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온다. 순식간에 무더위에 지친 고단한 심신이 확 씻겨나가 활력이 충전되는 기쁨을 노래하였다.

정조는 여러 차례 신하들과 聯句를 지었는데, 다음은 1784년(정조 8) 눈이 오는 밤에 옥당의 관원들을 召對할 때 「雪夜召對玉堂官聯句」이다. 『열성어제』 권41에는 정조가 지은 4구만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홍재전서』 권5에 실린 연구 전체를 보인다. 이때 참여한 관원은 승지 洪仁浩와 李兢淵, 玉堂의 李鼎運과 尹序東, 閣臣 李崑秀이다.

簾頭瑞雪集縱橫 均著高低大地平 〔御製〕	주렴 머리에 상서로운 눈이 종횡으로 내리어 높고 낮은 곳을 고루 채워 대지가 평평하네.	[정조 어제]
積得空濛渾是氣 飛來疎密不聞聲 〔臣仁浩〕	쌓양게 쌓인 것은 모두 氣일 뿐이어서 싱기고 촘촘하게 날아올 땐 소리도 안 들리네.	[홍인호]
瑤壘凍合千條硬 玉宇光添五夜明 〔臣崑秀〕	궁전 뜰엔 천 개의 고드름이 얼어붙고 궁전 용마루엔 오경에 밝은 빛이 더해졌네.	[이곤수]
管裏葭灰隨暖律 閣中梅影較寒英 〔臣兢淵〕	관악기의 갈대 재는 따스한 절서를 따르고 대궐의 매화는 찬 꽃망울이 분명하네.	[이공연]
近臣踏玉初登陸 遠樹搖花欲滿城 〔臣鼎運〕	近臣들은 흰 눈 밟으며 막 섬돌에 오르는데, 먼 숲에 흔들리는 눈꽃이 도성에 가득하네.	[이정운]
三白徵豐行月令 一陽來復叶宸情 〔臣序東〕	三白의 풍년 조짐은 월령대로 행해지고 일양이 돌아옴은 성상의 정에 알맞네.	[윤서동]
詠詩誰任韓公重 攀什恭知舜殿賡 〔臣崑秀〕	시를 읊음에 누가 韓愈의 중임을 감당하랴만 <sup>17)</sup> 삼가 어제에 화답함은 순임금 궁전의 화답임을 알겠네. <sup>18)</sup>	[이곤수]
在地雷鳴開泰運	땅속에선 우레 울려 태평한 운이 열리고 <sup>19)</sup>	

17) 한유는 辛卯年에 서설이 내리는 것을 보고 대풍을 기원하는 시를 지었다.

18) 순임금이 노래를 지어 불러서 신하에게 잘하도록 면려하자, 皇陶가 여기에 화답하여 노래를 불러 임금에게 잘하도록 권면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 「益稷」

自天香濕荷新榮	하늘에선 香雪 내려 새 꽃을 적셔주네.	
[臣鼎運]		[이정운]
關心菡萏將垂絳	가난한 백성 걱정하여 은혜로운 조서 내리고	
寓慕羹牆仰展誠	선왕을 깊이 사모하여 우러러 정성을 펴네.	
[臣仁浩]		[홍인호]
授簡梁園眞卽事	梁園에 종이를 내림은 참으로 지금의 일이니 <sup>20)</sup>	
不妨蓮燭坐深更	촛불 아래 깊은 밤 지내는 것도 무방하리.	
[御製]		[정조 어제]

정조를 포함하여 홍인호, 이곤수, 이정운은 각각 4구를 지었고, 이공연과 윤서동은 2구씩을 지었는데, 눈 내리는 밤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군신의 우의를 다진 시편이다. 정조가 먼저 서설이 내려 대지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다고 하자 참여한 신하들이 이를 이어서 눈이 내리는 모습, 눈이 내린 뒤의 아름다운 경관, 풍년에 대한 기원, 음양이 순환하여 봄이 오는 것에 대한 기쁨, 군왕의 성덕 등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말미에서 한나라 梁孝王이 兔園에서 연회를 베풀었던 고사를 빌어 참여한 신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기쁨을 토로하였다. 이 시는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지만 큰 주지는 눈 내린 밤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군신간의 우의를 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논문은 『列聖御製』에 실린 조선시대 국왕들의 한시 중에서 天氣와

---

19) 10월에 陰이 극에 달하였다가, 동지가 되면 一陽이 다시 땅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地雷復卦이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20) 간찰은 지금의 종이를 뜻한다. 漢나라 때 梁孝王이 눈 오는 날 兔園에서 酒宴을 베풀고 노닐면서 司馬相如에게 종이를 내리며 말하기를 “그대의 신비한 생각과 화려한 문장을 남김없이 구사하여 과인을 위해 글을 지어 달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관련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천기의 인식과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列聖御製』의 편찬 과정 약속한 뒤 국왕의 한시 중 天氣와 관련된 작품을 개관하고 이들 시편의 창작 동인과 작품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열성어제』에 실린 천기 관련 국왕의 시편은 성종·숙종·영조·정조·익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천기 현상 중에서 단비와 瑞雪, 가뭄과 홍수 등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편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을 중시하던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는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고, 간혹 두세 가지 범주가 혼효된 작품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기와 관련된 국왕의 한시를 天氣의 조화와 驗豊에 대한 기원, 천기의 不調와 民苦에 대한 자성, 天道의 섭리와 物理에 대한 탐색, 천기의 변화와 物象에 대한 玩賞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선 국왕의 한시에 나타난 천기 인식과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국왕의 한시에 나타난 천기에 대한 인식과 표현 양상은 기본적으로 治者로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개입하고 있고, 일부 작품은 개인으로서의 抒情을 토로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에는 天人感應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천기를 통하여 인간 사회의 질서 또는 도덕과 관련지으려는 의식이 개입되어 있음을 살폈다. 천기를 읊은 한시는 문인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남아 있으며, 이들은 조화로운 날씨에서 오는 풍년의 기원과 성덕의 칭송, 불순한 날씨에서 오는 민생에 대한 걱정, 천기 현상을 보면서 물리에 대한 탐색 내지 거기에서 오는 감흥의 표현과 物態의 묘사 등을 시로 표현하여 국왕의 천기 관련 한시와 공통점이 많다. 그런데 국왕의 경우 문인과 달리 천기가 불순하면 이를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이를 自省 내지 자책의 계기로 인식하고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기를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본 논문에서는 천기와 관련된 국왕의 한시만을 대상으로 천기의 인식과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향후 천기와 관련된 국왕의 산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 文獻>

- 『詩經』 『書經』 『朝鮮王朝實錄』  
『列聖御製』(규장각 영인본) 『宮闕志』  
卞季良, 『春亭集』(한국문집총간)  
劉在建, 『古今詠物近體詩』, 아세아문화사, 1981.  
正祖, 『弘齋全書』(한국문집총간)  
崔岵, 『簡易集』(한국문집총간)
- 『규장각소장왕실자료해제·해설집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金南基, 『『列聖御製』 解題』, 『列聖御製』,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2-2004.  
——, 「조선시대 君臣의 唱和와 그 의미-규장각 소장 廣載軸과 聯韻軸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38집, 한국한문학회, 2007.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 1999.
- 王力, 『漢語詩律學』, 上海教育出版社, 1957.

### Abstract

*The weather's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patterns in Joseon kings  
Sino-korean poems / Kim Nam Ki\**

This paper, king of Joseon dynasty of Sino-korean poems from the weather related works associated with the target recognition and expression patterns of the weather have been studied. Before full fledged discussion, chapter 2 appeared in the weather related Sino-korean poems full look at the kings works and motivation and creativity of these specimens were selected categories of work.

king's weather related Sino-korean poem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In this paper, weather related king's Sino-korean poems. weather poems about the wish of the harmony and good harvest, weather's disharmony and the self reflection people's suffering, provision of the duty of the sky and make sense of all things and a search for weather changes and patterns of things in sentiment and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hown in all times of the king's Sino-korean poems pattern recognition and examined the expression.

Throughout this discussion about the weather's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king basically as a ruler trying to promote the stability of livelihood as a purpose and some of work is about appearing the feeling of individual person can see king's prose that is related weather need to review.

**【Key words】** 『Collection works of Joseon kings[列聖御製]』, Sino-korean poems of Joseon kings, Recognition and expression patterns of the weather, Hope of good harvest, People's life, Search of things reason, Sentiment of things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2월 2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 Professor of Andong National Univ. / knk5671@andong.ac.kr